

“장성의 미래 10년 준비하는 여정...쉽 없이 정진할 것”

2020 신년사

유두석 장성군수

‘황룡강 르네상스’ 완성단계
 장성비전 2030 종합계획 수립
 “장성관광 새 시대 열 것”
 복지분야 더욱 든든하게 지원
 “이불변 응만변’ 쉽 없이 정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기운을 받아, 보다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간 장성군은 ‘더 큰 장성, 더 자랑스러운 장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진월보(日進月歩)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황룡강을 중심으로 장성군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황룡강 르네상스’ 역시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올해에는 전략 발전기반 구축과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관광콘텐츠 개발, 그물망 복지 구현, 미래농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비전을 담은 ‘장성비전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성발전의 마스터플랜을 확립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숙원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 중심지와 황룡강 서부권역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과 장성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남부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덕성행복마을 조성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 기본구상을 통해 고려시멘트 부지에 현대적 의미의 복합주거단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장성관광의 새 시대를 열

겠습니다. 황룡강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발원지 정비사업과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원 지정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3년 연속 100만 명이 찾은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올해부터 다각적인 발전 방안과 수익창출 모델을 마련해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재로 인정받은 장성 필암서원은 세계유산 명품 돌레길 조성사업과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을 추진해 세계인이 찾는 유산으로 바꾸어갈 것입니다.
 또한 수변길과 옐로우출렁다리를 통해 관광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장성호에는 올해 안에 수변 백리길과 제2출렁다리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령산에는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과 하늘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황룡강 인근에 조성 중인 장성공설운동장은 연내 완공해 2022년 도민체육 유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분야를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가족센터’와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호도권과 토방낚지기 사업 등 기존의 복지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과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이 희망이 되는 미래농업을 육성해 ‘부자농촌 장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황금사과를 중심으로 한 컬러푸트를 장성의 대표 품목으로 키워내고, 2022년까지 총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성 먹거리의 종합전략이라 할 수 있는 ‘푸드플랜 사업’은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해 군의 관계시장을 광주 도심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 6천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2년 연속 전국 최고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더욱 건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지난해 장성군은 5만 군민이 일치단결해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KTX의 장성역 재정착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우려를 기대로 바꾼 거버넌스의 힘은 우리 군 발전의 멈추지 않는 엔진이자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여정에 군민과 향우, 공직자, 사회단체 등 옐로우시티 장성을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의 동행을 기대하며, 새해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만 가지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이불변 응만변(以不變應萬變)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변치 않는 목표를 위해 쉽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성=백종영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